<반짝반짝 한국어> 8 이와네 테이티오타의 싸움

Hello and 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5 episode 8.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with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한국어의 Stefano 입니다.

F: 안녕하세요. 진이입니다. 그런데 비 맞았어요? 옷이랑 머리가 다 젖었네요. 산성비라 몸에 안 좋을 텐데,,

M: 제가 고향에 있을 때는 아주 심하게 내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맞고 다녔거든요.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나 우산을 쓰지 젊은 사람들은 보통 우산을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산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네요. 근데 산성비 맞으면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그런 건 설마 아니지요? 안 그래도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서 고민인데,,,

F: 빙고, 어떻게 알았지요? 산성비는 황산이 포함되어 내리는 비라서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특히 사람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은 정말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비를 자주 맞으면 머리가 잘 빠진다는 소리가 있던데,, 어 그러고 보니 Stefano 씨, 머리가 적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M: 진짜요? 나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한 백 번쯤은 그냥 비를 맞은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 머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이 씨, 거울 없어요? 거울?

F: 자, 자 여기 거울 있어요. 아직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하긴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우산을 잘 안 썼어요. 산성비라는 단어도 없었고,,점점 환경이 나빠지니까 산성비 같은 것도 생기고,,환경 오염은 전 세계가 다 같이 걱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환경에 대한 기사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M: 저도 좀 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우산을 안 쓰고 멋있게 비를 맞을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며, 빨리 읽어 주세요 . 진이 씨.

F: 네, 거울 그만 보고 기사에 집중해 주세요. Stefano 씨.

N:. 키리바시 공화국은 호주 동북쪽 미크로네시아 중부에 위치한 길버트 제도와 라인 제도, 피닉스 제도에 있는 국가입니다. 인구 11 만명이 사는 키라바시는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수몰 위험에 직면해있습니다. 키리바시는 현재 약 2,000 ㎞ 떨어진 피지섬에 영토를 구입하며 대규모 이주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키리바시 토착민 이와네 테이티오타(39)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 난민'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뉴질랜드와 법적 투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테이티오타의 삶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 세대가 곧 직면할 미래 등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최근 전했습니다.

영국 최대 구호단체 중 하나인 크리스천 에이드에 따르면 2050 년까지 전세계에서 최소 2,500 만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2 억명에서 10 억명까지 추산되기도 합니다. 전세계 인구의 40%는 해안으로부터 100 ㎞ 이내에 살고, 1 억명 정도는 해발고도 1m 이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인간의 거주 환경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7 개국(G7) 정상들은 지난 7 일 독일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글로벌 탄소 배출을 2050 년까지 지난 2010 년 수준보다 40~70%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 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후속 의정서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장 기후 난민을 인정하는 것조차 곤란해하는 선진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실제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나설 지에 대해서는 비관론도 많습니다. 실제 이번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량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일례로 우리 정부도 지난 12 일 '2030 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 1 월 공표한 2020 년 감축 목표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이티오타는 포린폴리시에 "기후변화로 많은 이들이 강제 이주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F: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사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나요? Stefano 씨, 거울 안 보고 열심히 들었어요?

M: 물론이죠.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결국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해수면, 즉 바다 높이가 높아져서 바다 근처의 어떤 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됐다. 전세계가 힘을 합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죠?

F: 잘 이해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나하나 나눠서 들으면서 이야기 해보지요.

N: 키리바시 공화국은 호주 동북쪽 미크로네시아 중부에 위치한 길버트 제도와 라인 제도, 피닉스 제도에 있는 국가입니다. 인구 11 만명이 사는 키라바시는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수몰 위험에 직면해있습니다. 키리바시는 현재 약 2,000 ㎞ 떨어진 피지섬에 영토를 구입하며 대규모 이주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키리바시 토착민 이와네 테이티오타(39)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 난민'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뉴질랜드와 법적 투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테이티오타의 삶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 세대가 곧 직면할 미래 등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최근 전했습니다.

F: 어때요?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는데,,지명이름이 좀 많아서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M: 키리바시 공화국이라는 국가는 처음 들어 봤는데,,아마 아주 작은 섬나라 같네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수몰 위험에 직면? 뭔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맞는데,,정확한 뜻이 뭐죠?

F: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많이 들어서 우리 청취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땅이 바다 속에 잠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즉 땅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곳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난 번 비로 우리 마을이 수몰되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쉽겠네요. Stefano 씨, 기후 난민이라는 단어도 들었어요?

M: 네, 안 그래도 질문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난민이라는 말은 잘 알죠.. 요즘 시리아 난민이 국제적 이슈니까,,기후 난민이라,,, 기후 때문에 난민이 되는 것,,즉 기후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 살 수 없게 돼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맞죠?

F: 딩동댕. 제법인데요. 맞아요. 시리아 난민의 경우는 내전 때문이고 이 경우는 기후 때문에 난민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이 점점 늘어나서 국제적 문제인데 기후 난민까지,,걱정이네요. 다음 뉴스를 한 번 들어 볼까요?

M: 잠깐요. 하나 더. 마지막 문장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정확히 무슨 말이지요?

F: 여기서의 의미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 지 미리 생각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M: 아, 그러니까 키리바시의 상황으로 우리의 미래를 대충 알 수 있다는 말이네요. 아 무서운데요. 다음 뉴스도 빨리 들려주세요.

N: 영국 최대 구호단체 중 하나인 크리스천 에이드에 따르면 2050 년까지 전세계에서 최소 2,500 만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2 억명에서 10 억명까지 추산되기도 합니다. 전세계 인구의 40%는 해안으로부터 100 ㎞ 이내에 살고, 1 억명 정도는 해발고도 1m 이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인간의 거주 환경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F: 여러분 어때요?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우셨나요? Stefano 는 어때요?

M: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2050 년에 많게는 2 억명에서 10 억 명까지 기후 난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전 60 살 이후에는 꼭 바다 근처에 살기로 내 버킷리스트에 적어 놨단 말이에요.

F: Stefano 씨, 진정하고 다음 뉴스도 들어보지요. 혹시 해결책 같은 게 나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N: 선진국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7 개국(G7) 정상들은 지난 7 일 독일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글로벌 탄소 배출을 2050 년까지 지난 2010 년 수준보다 40~70%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 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후속 의정서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M: 조금 긍정정인 얘긴 것 같네요. 그런데 진이 씨. "합의했습니다"는 무슨 뜻인가요? 뉴스를 들어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 같아요.

F: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어떤 문제나 일에 서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해요.

M: 아, 드라마에서 많이 본 대사가 생각나네요. "난 그 이혼에 합의 안 할거야" 맞죠?

F: 에이 Stefano 씨, 좋은 예문 좀 만들어 주세요. Stefano 는 다시 약속에 늦으면 진이에게 비싼 밥을 사기로 진이와 합의했다. 어때요?

M: 진이 씨도 늦을 때 있으면서 "이 합의는 무효입니다." 저도 잘 만들었죠?

F;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을 한 번 들어보죠.

N: 하지만 당장 기후 난민을 인정하는 것조차 곤란해하는 선진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실제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나설 지에 대해서는 비관론도 많습니다. 실제 이번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량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일례로 우리 정부도 지난 12 일 '2030 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 1 월 공표한 2020 년 감축 목표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이티오타는 포린폴리시에 "기후변화로 많은 이들이 강제 이주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F: 어떠셨나요? 여러분. Stefano 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Stefano 어때요?

M; 진이 씨, 지금 저 놀리세요? 저 그 비관론이라는 단어의 뜻 안다고요. 어제 공부했다고요. 모든 일이 잘 안 될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지 않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살기는 다 틀린 것 같네요.

F: 자 자 Stefano 씨. 힘내서 우리 마지막 문장까지 청취자들에게 설명 드려요. 비관론 말고 Stefano 가 싫어할 만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눈치챘어요?

M: 성사되기 어렵다 아니에요? 성사되다의 의미는 모르지만 어렵다가 있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F: 네, 맞아요. 성사되다는 어떤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는 말인데 어렵다가 있으니까 말대로 힘들겠단 말이겠지요. 아직 선진국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나 보네요.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Stefano 씨, 꼭 60 살 이후에 바닷가에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기사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호주 근처의 조그만 나라 국민들이 기후 난민이 돼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게 됐다. 지국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더 이상 바닷가 근처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선진국가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정도가 약하다라는 내용도 있었네요.

여러분, 오늘 기사 어떠셨어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조금은 내 일처럼 느껴지셨나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뭔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기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페이스 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Stefano 씨,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

M: 우리 주소는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시사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F: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기사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M: The piece of news from above is an adapted excerpt from the article '이와네 테이티오타의 싸움' that appeared on the Hankook Ilbo on June the 24th 2015. Twinkling Korean,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Gilddong KFL.

© 2016 Gilddong KFL All right reserved.